

〈희망세상〉 2010년 1월호부터 “민주주의전당을 디자인하자”가 연재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공간,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건축물들이 지닌 특성과 장단점, 공공건축물과 조형물에 담긴 의미 등을 탐색해 보면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이 갖춰 나가야 할 모습, 담아내야 할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건축에 대한 우리의 오해 자금성 콤플렉스를 버려라

글 · 사진 구분준 bonbon@hani.co.kr

건축, 우리가 살면서 이 단어를 실감할 일은 사실 별로 없다. 그건 건축이란 것이 공기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건축물 안에서 살고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이란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건축이란 것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일상을 탈출해 특별한 시공간으로 떠나는 때, 바로 여행이다. 여행이란 결국 건축을 만나러 가는 일이다.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든 가이드를 졸졸 따라다니는 관광이든 모든 여행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건축물을 보러 다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유적도,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호텔도 모두 건축물들이다. 그래서 여행은 건축에 대해 알게 되고 친해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런데 동시에 건축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여행가서 보는 건축물들은 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들이

다. 왕궁이나 성 등,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들은 방문객들에게 강하고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특히 우리나라 건축물과 전혀 다르게 생겼거나 비교되는 건물들은 더욱 특별해 보이기 쉽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거대 건축물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건물들을 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도대체 왜 우리나라 왕들은 이런 화려한 건물 하나 남기지 않은 거야?”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면서 “조상 잘 만나 이런 놀라운 건축물 하나 물려받아 거저 돈을 버는구나”라며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가장 흔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오해가 생겨난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크기도 작고 보잘 것 없다는 오해다.

중국 자금성을 보면 사람들은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경복궁과 견줘보면 더욱 그 크기가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자금성을 본 외국 사람들이 우리 경복궁을 보면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할까 절로 걱정하게 될 정도다.

자금성에 비교하면 경복궁은 분명 작다. 그러나 과연 사실일까? 결코 아니다. 경복궁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자금성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중국의 자금성



자금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궁전이다. 중국처럼 큰 나라들에도 이만큼 큰 궁전은 없다. 그만큼 자금성은 유난스럽고 지나치게 크다. 경복궁이 아니라 세계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주눅이 들게 되어 있다.

경복궁은 작은 궁전이 아니라 오히려 큰 궁전이다. 자금성보다 작을 뿐이다. 조선 궁궐들이 독특한 점은 여러 개 궁궐이 복합 콤플렉스를 이룬다는 점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사실상 하나의 궁궐이면서 바로 옆 경복궁과 이어져 궁궐 타운을 이룬다. 경복궁 서쪽으로 지금은 거의 자취가 사라진 경희궁이 붙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선 궁궐은 4개의 궁전이 합쳐져 하나가 되고 다시 여기에 종묘가 따라 붙는 실로 거대한 궁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복궁 하나만 비교해봐도 일본 천황이 사는 황거나 프랑스를 뺀 다른 유럽 왕궁들보다 적지 않거나 오히려 더 큰 편이다. 그런데도 자금성이 하도 크다보니 경복궁을 작다고 느낀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원래 규모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종이 대대적으로 다시 지은 경복궁은 무려 7000칸이 넘는 거대 건축물이었다. 사람 놀라게 하는 자금성은? 9999칸이다. 이 큰 경복궁을 일제가 무려 4000칸 넘게 헐어버렸다. 절반도 못되게 쪼그라든 경복궁만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복궁이 작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오해다.

자금성 같은 초거대 건축물들은 놀라운 위용 때문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간과하게 만든다. 이런 건물들을 짓기 위해 치러야했던 엄청난 희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피라미드나 앙코르와트 같은 건물이 없는 것은 스케일 큰 관광 아이템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민족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초대형 건물들은 고대에는 백성들에게 육체적 재앙이었고, 중세 이후에는 국가경제적 재앙이었기 때문이다.

지독하게 큰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위정자가 그 규모만큼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다. 거대 건축물은 위정자가 얼마나 백성을 함부로 다루며 죽였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점에서 피라미드는 건축의 경이인 동시에 인간 몽매함의 경이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놀라운 건물을 지은 나라가 이집트뿐이지만 또한 이런 황당한 건물을 짓느라 백성들을 수없이 죽인 황제가 있었던 나라 역시 이집트뿐이다. 그리고 그런 황제에게 바보같이 최후의 저항 한 번 못해보고 처절하게 부림당한 국민들이 있었던 나라도 이집트뿐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리도 순종하며 피라미드 짓느라 죽어나갔는지는 지금도 세계사의 미스터리다. 거대 건축물은 그래서 인

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오만함과 잔인함도 함께 보여주는 두 얼굴을 가진 문화유산이다.

생각해보면 건축물의 가치를 크기로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건축물이 크지 않아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잊는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이 꼽는 건축 걸작들을 보면 의아해지기 쉽다. 전문가들이 높이 치는 건물들을 보면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많다.



창덕궁 애련정

한국 전통 건축물들 중에서 최고의 건물로 자주 꼽히는 창덕궁의 애련정은 '이보다 더 작을 수 없는' 건물이다. 목조 건축의 최소단위인 1칸짜리 정자다. 거의 미니어처 건물처럼 보이는 이 애련정을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크기를 버린 대신 얻어낸 미학적 성취 때문이다. 건물이란 실제로는 크게 지을 때보다 작게 지을 때 더 디자인 특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쉬운 속성이 있다. 애련정은 그런 건축의 특성을 활용한 건물이다. 크게 지을 수 있었지만 초소형 건물로 지어 큰 건물이 보여줄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창덕궁과 애련정은 큰 건물과 작은 건물 각각의 미학과 그런 서로 다른 건물들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을 만드는 것 못잖게 어려운 고난이도 건축임을 가르쳐준다. 그런 점에서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작지만 더욱 한국적이고 더욱 훌륭한 건축물로 볼 수도 있다. 궁궐 같은 건축물은 특히나 크기가 아니라 나라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 감상해야 할 건축물들이다.

자금성은 중국에서만 가능하고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었던 궁전이다. 옛 중국 왕조가 자금성을 주축했을 정도로 크게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온 중국은 무력으로 주변 나라를 지배하기 보다는 외교적 상하 관계



바이에른의 노이슈반슈타인성



인도의 타지마할

와 조공이라는 무역 시스템으로 주군 국가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반면 주변 나라들은 중국을 윗나라로 인정해주는 대신 간섭과 압력을 피할 수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에게 중국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줘야만 했다. 그래서 외국 사신들이 중국에 왔을 때 입이 떡 벌어져 중국이 정말 큰 나라라고 믿게 만드는 거대한 시각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은 것이 바로 자금성이다. 자금성은 오로지 덩치 하나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중국 황제의 통치 편의용 무대세트였다. 반면 외국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공간으로서의 궁궐이 필요 없었던 조선 왕조는 왕도정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장이자 미디어로서의 궁궐을 추구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경복궁을 자금성에 비교하며 왜 이리 껌껌하게 작게 지었냐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도 아닌 우리가 왜 이리 경복궁을 크게 지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위정자들이란 건축물에 집착하기가 쉽다. 그래서 과하게 건축물에 매달리다가 자신은 물론 나라에 치명상을 입힌 이들이 흔하다. 멀리서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다. 경복궁만 봐도 된다. 조선 왕실은 나라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경복궁 중건을 강행했고, 자금이 모자라 당백전을 발행하는 바람에 국가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건축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수도룩하다. 타지마할과 아그라성 등 수많은 건축물을 짓는데 재위 기간의 대부분을 보낸 무굴 황제 샤자한은 국가 재정 파탄을 우려한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죽었다.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는 평생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 인적조차 없는 산속에 지은 노이슈반슈타인성을 짓느라 자신과 나라의 몰락을 재촉했다.

왕조시대나 해당되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 경제 논리 등 온갖 합리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따지는 현대에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결코 그렇지 않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부쿠레슈티에 남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건물인 인민의 집은 인간과 정치 건축이 빚어내는 무모한 집착은 인간세상에서 늘 반복된다는 철칙을 그대로 보여준다. 차우세스쿠는 모든 독재자들처럼 건축에 미쳤고, 다른 독재자들보다 훨씬 더 황당한 건축을 추구했다. 1985년 이 독재자는 부쿠레슈티의 오랜 역사 현장인 구도심을 밀어내고 매일 공사 현장에 2만 명 이상을 투입해 공사를 강행했다. 방이 3200개가 있는 이 건물을 꾸미는데 수정만 3000톤이 넘고 투입된 목재만 90만 톤 이상이었다. 결국 차우세스쿠 본인은 이 건물 완공을 지켜보지도 못했다. 가난에 지치다 못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는 1989년 처형되고 만다. 건물 하나 때문에 그가 몰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허황된 건물은 그의 몰락을 극명하게 상징한다. 이 쓸데를 찾기 힘든 건물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루마니아의 의회궁전

사용할 방도를 찾느라 루마니아는 10년 넘게 고민해야했다. 독재자가 억지로 남기고간 이 건물은 오랜 논란 끝에 의회로 쓰이기로 결정됐고 이름도 의회궁전으로 바뀌었다.

문화유산으로 남은 세계 각국의 주요한 거대 건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떠 뛰어나고 더 나쁜 것인지는 따지기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인간적인 건축, 보다 인간 중심인 건축물과 그렇지 못한 건축물로는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전통건축물들은 틀림없이 보다 인간적인 것들이었다. 크기에 연연하지 않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시한 건축이다. 자금성이나 피라미드는 없는 대신 다른 나라보다 백성을 덜 괴롭히며 고유한 건축문화를 만든 것이다. 경복궁처럼 규모가 커진 예외도 있지만 창덕궁 같은 궁전들을 보면 이런 특성이 훨씬 더 잘 살아난다. 창덕궁이 경복궁보다 더 한국적인 건축유산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이런 전통 건축철학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가장 단순한 기준인 크기로 모든 건축물을 평가하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공공건축일수록 더욱 이런 폐단이 심하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는 '겨레의 집'은 높이가 45미터에 이른다. 중국 천안문보다 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맞배 지붕 집이라고 내세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잘 모른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겨레의 집이 천안문보다 더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사진제공 독립기념관

21세기 우리가 건축에 대해 먼저 떨쳐내야 할 오해가 크기를 따지는 습관이다. 건물의 가치를 크기와 넓이 건축비로 따지는 한 우리는 북한의 옷기는 건물들과 차우세스쿠의 황당한 건물을 비웃을 수 없다. 이런 저차원적인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주범이 안타깝게도 공공건축이었다. 동양 최대, 세계 최대에 집착해온 공공분야의 건축마인드가 남긴 부작용은 실로 크고 깊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해 건축에 대한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부문 또한 공공건축이다. 공공건축은 그만큼 힘이 세고 그래서 더 중요하다. 20세기 한국 공공건축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21세기 지어질 공공건축물들은 이제 크기가 아닌 다른 가치들을 보여주는 건물들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자금성 콤플렉스를 버리고 우리 건축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글 구분준 | <한겨레> 기자, <http://blog.hani.co.kr/bonbon>